

북한의 대외 무역 특징과 전망

신힘철, 이영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대외 무역 현황

지난 2008년 남북 관계가 어려운 시기를 겪는 중에도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위탁가공교역과 경제협력사업으로 남북 교역액은 2,200만 달러 증가한 18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남한과의 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 무역액을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국¹⁾과 북한 간의 작년 무역액을 조사한 결과 전년대비 약 8억 달러 정도 증가하였다.²⁾ 따라서 2008년 북한의 대외 무역량은 약 37억 달러에서 38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를 남북 교역 규모와 더한 북한의 2008년 총 교역 규모는 약 55억 달러에서 56억 달러 수준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대외 무역 규모 증가의 이면에는 약 16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 또한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북한 대외 무역에서 나타난 상대국별, 품목별 그리고 무역수지 측면에서 특징을 살펴본 후, 2009년 대외 무역에 주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주변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남북 경협 여건 분석에 근거하여 북한 대외 무역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2008년 대외 무역의 특징

사상 최대 규모의 북중 무역

1999년 이후 10년간 북한의 무역 상대국 변화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중국과 태국 무역의 증가, 일본과 홍콩 무역의 감소'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1999년부터 북한 무역 점유율 1위 자리를 지켜오고, 그 기간 동

1) 본 연구에서는 전년 점유율 1, 2위였던 중국, 태국과 2008년 들어 특징적인 변화를 보이는 미국과 EU를 주요 무역상대국으로 규정하기로 한다.

2) World Trade Atlas (2009)의 자료 역시 위의 결과와 근접한 전년대비 8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안 점유율은 25%에서 60%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태국 역시 2002년 이후 2007년까지 평균 점유율 10.7%로 중국, 남한 다음 가는 주요 무역 상대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들어 중국의 대북 무역규모는 41.2% 증가하여 북한 대외 무역의 73.9%를 점유한 27억 8,700만 달러를 기록한데 비해 태국은 7,700만 달러로 무역규모는 66.3% 감소하였다.

< 북한의 對중국, 對태국 무역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중국				태국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6	468	1,232	1,700	7.5	147	227	374	13.7
2007	582	1,392	1,974	16.1	36	192	229	-38.8
2008	754	2,033	2,787	41.2	29	48	77	-66.4

자료: KOTRA, 『2007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한국무역협회

중국과의 교역액이 늘어난 것은 2008년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이 크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8년에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전년과 거의 비슷한 52만 9,000톤의 원유를 구매하였지만, 금액에서는 46.8% 증가한 4억 1,400만 달러를 지출하였다. 또한 주요 수출 품목인 무연탄, 철광석, 선철의 수출액 역시 전년대비 약 1억 4,000만 달러(5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의 경우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유엔의 대북 제재조치에 동참하면서 2007년 무역 규모가 38.8% 감소한 바 있다. 더욱이 2008년 들어 태국에서의 곡물과 원자재 수입량이 급감하면서 무역 규모는 66.4% 감소한 7,700만 달러에 그쳤다.

< 북한의 對중국 원유 수입 >

(단위: 백만 달러, 만 톤)

구분	금액	수량
2006	247	52.4
2007	282	52.3

2008	414	52.9
------	-----	------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 외의 무역 상대국 중에는 EU와 미국이 눈에 띈다. 특히 EU는 2008년 9월 현재, 무역규모가 전년대비 122.6%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 사실을 EU가 북한의 새로운 무역 파트너로 부각되고 있음 보다는 2007년에 71.3% 감소한 교역량이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7년 EU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인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북한과의 무역이 크게 감소했었다. 미국 역시 북한을 적성국·테러지원국 등으로 지정하여 2005년 이후 북한과의 공식적인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에 이를 해제하면서 미국은 북한에 5,2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 북한의 對EU, 對미국 무역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EU				미국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6	196	158	354	32.1	-	-	-	-
2007	45	56.6	101.6	-71.3	-	-	-	-
2008	42.7	183.5	226.2	122.6	1.7	52	53.7	-

자료: KOTRA, 『2007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한국무역협회, World Trade Atlas (2009)

주: 2008년 EU는 9월, 미국은 11월까지 데이터

원자재 수출입의 증가와 곡물 수입 감소

북한의 수출입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광물성생산품, 비금속류 등의 원자재이다. 200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러한 품목들은 수출의 54.9%, 수입에서는 31.2%를 점유하였다.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구조상 2008년 북한의 무역은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2008년 북한의 수출은 전년대비 5.3%, 수입은 28.3% 증가했는

데, 이러한 수출입의 증가분은 산업의 발전이나, 경제규모의 성장보다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기인한 것이다. 앞의 '對중국 수입'에서 확인했듯이 2007년과 거의 같은 량의 원유를 수입하는데 지출액은 46.8% 증가하여 4억 1,400만 달러를 더 지출하였다. 수출에서도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인 광물 자원들이 모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수출 금액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 주요 광물의 對중국 수출 금액 및 수량 증가율 >

(단위: %)

	철광석	석탄	선철
금액 증가율	115.5	23.8	57.8
수량 증가율	44	-38	-24

자료: 한국무역협회

하지만 높아진 원자재 가격과 노후화로 가동률이 낮아진 북한의 공장은 공업 원자재 광물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한다. 일례로 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알루미늄의 수입액은 2007년 1,609만 달러에서 2008년 19만 달러로 98.8% 하락하였다.

또한 식량난으로 인한 주요 수입품목인 곡물의 수입이 감소하였다. 이 역시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이 아닌, 미국의 제재가 해제되면서 가능해진 식량 지원이 원인이다.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식량 16만 9,000톤이 지원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주요 곡물 수입국인 중국과 태국에서의 곡물 수입은 70% 이상 감소하였다.

< 對중국, 對태국 곡물 수입 현황 및 증가율 >

(단위: 천 달러, %)

	2007	2008	증가율
태국 (곡물, 당류·설탕과자)	79,570	20,700	-74.0
중국 (곡물)	26,000	6,700	-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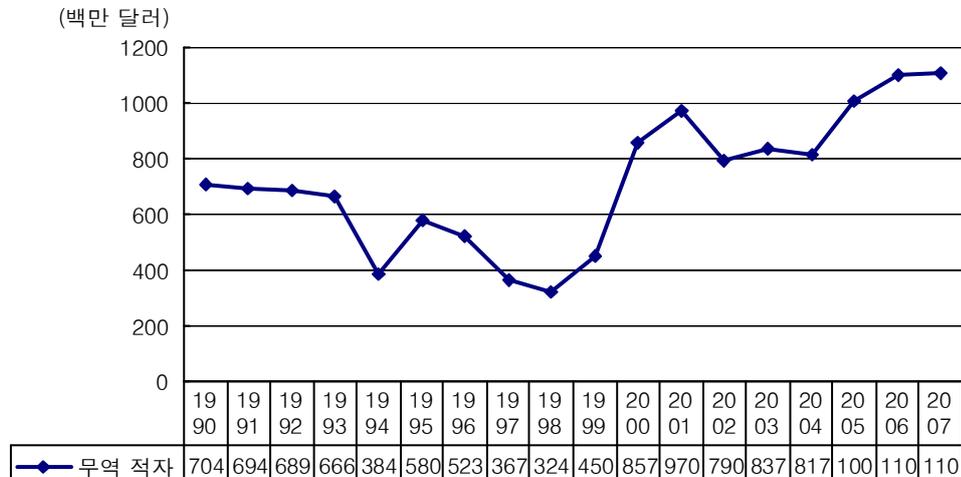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World Trade Atlas (2009)

무역 적자 심화

내부 생산으로 부족한 물자를 수입으로 보충하는 북한 경제는 그 구조상 만성적인 무역 적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1990년 이후 2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북한은 최소 3억 2,400만 달러에서 최대 11억 400만 달러에 이르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였다. 여기에는 경제 상황이 좋았던 1990년대 초반, 최악의 경제난을 겪은 1990년대 중후반 개혁 조치를 단행한 2000년대 초중반, 대외 원조를 받고 있는 2000년대 중후반에 걸쳐 단 한해의 예외도 없다. 또한 국가별 무역을 살펴본 2008년 역시 약 16억 1,400만 달러 적자인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10대 무역 상대국 중 북한이 흑자를 시현한 나라는 인도, 브라질, 알제리 3개국에 불과하다.

< 무역적자 규모 추이 >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호.

더욱이 북한이 갖고 있는 경제구조와 현재 침체된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이러한 무역수지 악화는 지속될 것이다. 북한은 잉여생산물이 없는 구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거의 없으며 만성적인 무역 적자로 인한 외화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산림과 산업기반시설이 천재지변에 취약한 구조³⁾를 가지

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EI,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정책보고회 자료집」, ‘북한의 자연재해취약지 추정 및 남북협력 방안 연구’, 2009. 3. 3, pp. 31~45.

고 있어 수해와 가뭄이 발생하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만성적인 식량난, 에너지(전력)난을 겪게 된다.

열악한 북한의 산업 구조는 무역구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은 1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는데, 특히 무연탄, 철광석 등의 광산물과 오징어, 조개 등의 수산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1차 산업의 수출 비중은 지난 5년 평균 62.7%에 달하고, 2007년 수출액은 5억 6,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차 산업 위주의 수출 품목 구성으로 인해 북한의 무역 구조는 국제시세나, 기후 변화와 같은 외부적 변화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1차 산업에 의존하는 취약한 제조업 기본 구조에서는 부족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무역수지 적자의 개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은 생산력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외 무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열악하며 무역량을 증대시키기가 어려운 것이다.

< 북한의 1차 산업 수출량 및 비율 >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출량	488,513	702,455	619,080	544,369	569,202
비율	62.9	68.9	62	57.5	62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호.

2009년 대외 무역 전망

2009년 북한 대외 무역 전망에 있어서 북중 협력 강화, 남북 경협, 글로벌 경제 위기가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는 북한의 대외 무역 전체의 82.5%를 차지하는 중국과 남한과의 경제 협력은 물론 주변국들과의 정치·경제 관계와 글로벌 경제 위기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들 요인을 중심으로 2009년 북한의 대외 무역 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긴밀한 협력 속 對중 무역 증가 예상

중국과의 무역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2.8%의 무역 증가율을 보인 것과 같이 2009년에도 양국 간의 무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아 2009년을 '북중 우호의 해'로 지정하여 더욱 활발한 정치·외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북한과 중국은 상호간 총리의 친선 방문과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논의되는 등 관계 강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과 중국의 '안정되고 견고한(2S: Stable and Solid)'한 동맹관계를 통하여 2009년에도 양국의 무역은 유지 및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덧붙여 북한은 2008년 지속된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모색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북핵과 미사일과 같은 정치·외교적인 문제의 해결 과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다자주의 정책을 통해 북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특수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6자회담 및 여타 관련국들과의 협조를 통한 전략을 구사하며 미봉책이 아닌 근원적 해결과 위협의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통해 현실적인 대북 접근을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과의 관계 진전 여부에 따라 대폭적인 지원도, 경제제재의 재가동도 모두 가능할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남북자 문제로 악화된 국내 여론과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북일 관계의 최우선 과제로 유지할 것이다. 특히 집권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저조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여지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거기에 다시 침체 국면에 접어든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여러 가지로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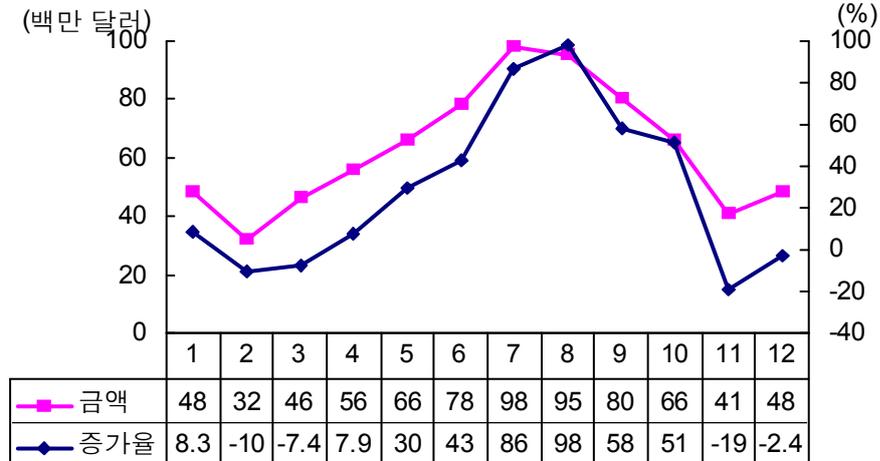
러시아는 정치·외교적으로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를 통해 국제사회의

경제적 다극화 질서 구축에 앞장 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제 현안을 통한 러시아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북핵 6자회담을 비롯한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영향력 확대를 모색할 것이다. 특히 대북 관계에서는 2008년 대북 에너지·경제지원을 완료하는 등 우호적인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는 2009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두 국가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된다면, 현재까지의 무역 형태나, 대북지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의 경제 협력도 가능하다. 현재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을 위하여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자본 유치와 공동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참여가 논의되고 있다. 논의대로 북한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북한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 협력을 통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원자재 수출 감소 예상

북한은 대외 의존도가 낮은 폐쇄경제 이지만, 2008년 말부터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는 북한의 대외 무역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8년 초반에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일시적인 프리미엄을 누렸지만, 후반기에 지속된 세계경제의 위축으로 원자재에 대한 전세계적인 수요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원자재가 주요 수출 품목인 북한의 對중국 수출을 월별로 보았을 때, 8월 이후 그 규모가 급격히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수출 단가가 10월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對중국 수출의 감소는 가격 요인보다는 중국 측의 수요 하락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원자재 위주의 수출이 이루어지는 북한의 대외 무역은 세계 경제 위기 속에 수출 감소와 이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북한의 월별 對중국 수출 추이 >



자료 : 임강택, 『북한경제리뷰』, 2009년 3월호. KDI 재인용.

< 북한의 월별 對중국 수출 단가 >

(단위 : 달러)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단가	0.1	0.1	0.17	0.13	0.13	0.14	0.15	0.16	0.21	0.2	0.13	0.14

자료 : 임강택, 『북한경제리뷰』, 2009년 3월호. KDI 재인용.

반전이 어려운 남북 경협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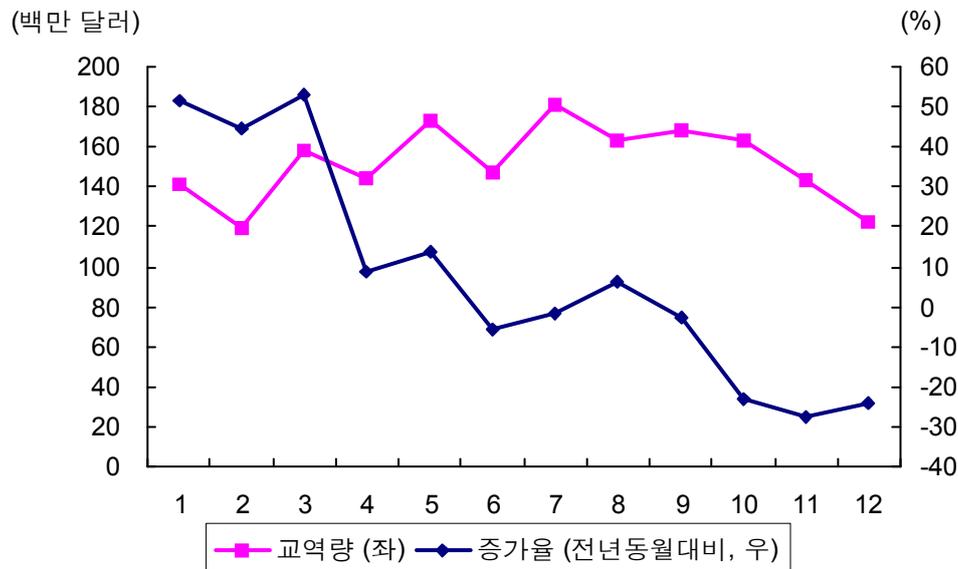
남북 경협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남북 관계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북핵 문제와 북미 관계, 남북 관계와 같은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외적 요인에 직·간접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2009년 남북 관계 역시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영향으로 급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비핵 개방·3000' 구상을 견지하고 있고, 비핵화를 남북 경협 추진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이상, 북한의 양보가 없는 한 정책 전환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북한 역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속에서 체제 비판의 전단 살포 중단과 6.15 및 10.4 선언의 이행 약속이 없는 한, 비관 일변도에서 갑자기 남측의 대화 제의를 전격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결국 남북한 어느 한 쪽의 양보가 없는 한 남북 관

4) 『통일경제』 (2008), 겨울호의 “경협 확대의 새로운 모멘텀 형성”, 홍순직. 참고

계 개선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경색 국면의 남북 관계 지속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개성공단 2단계 착공을 북핵 진전과 연계한 상황에서, 금강산·개성 지구의 관광 중단과 육로통행 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기숙사 건설 등의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 착수가 지연되면, 신규 투자는 물론 기존의 남북 교역마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실제로 2008년 월별 남북 교역량을 살펴 볼 때, 전체 교역량은 1억 4,000만 달러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이고, 전년동월대비 교역량 증가율은 50%대에서 -20%수준으로 지난 1년 사이 크게 감소하였다.

< 월별 남북 교역량 및 증가율 >



자료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동향』, 2007, 2008

반전을 이루기 어려워 보이는 2009년의 남북 관계에 비춰 볼 때, 현재의 '진전과 서행'의 북핵 및 북미 관계가 지속되고, 우리 정부의 정경연계 대북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2009년 남북 경협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종합하면, 올해 북한의 대외 무역에 대한 전망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중국과의 무역 증가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문제

로 인한 대외 무역의 활로 모색이 어려움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을 더욱 증대할 것이다.⁵⁾ 북중 무역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더불어 더욱 긴밀히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는 것도 중요한 확대 전망 요소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남북 교역의 정체이다. 남북 관계가 현재의 대치 상태를 일정 기간 유지할 것으로 보임으로써 경협이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개성공단의 안정화 여부가 최대의 변수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경기침체의 영향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위기가 대외 경쟁력이 약한 북한에는 더욱 어려운 무역 여건을 제공할 것이다. 결국 전반적으로 세계 금융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대외의 투자나 무역 조건은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5) 연합뉴스, 北 연말연초 대중 비료수입 40배 급증, 2009. 3. 13일자 보도.